



마셜 필(Marshall R. Pihl)의 번역 자가교정(self-revision)을 통해 살펴본 한국문학 번역의 방향*

이 상 빈
(한국외대)

1.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현대소설 번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마셜 필(Marshall R. Pihl) 교수와 그의 번역 자가교정(self-revision)을 분석하고 자가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문학의 번역 방향을 논할 것이다. 마셜 필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다수의 단편소설을 영역(英譯) 했으며 출판된 번역을 일부 수정하여 편저 형태로 재출판하였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초판으로 나온 번역과 재출판된 번역은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 이상 차이가 나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19S1A5A2A01039850). 이 논문의 초고는 2020년 4월 18일 개최된 한국번역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해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이지민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때문에 재출판된 번역에서 교정된 부분을 찾아 분석한다면 마셜 필이 추구하는 보다 바람직한 번역 또는 시대에 부합하는 번역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셜 필의 초역과 자가교정본 8쌍을 비교함으로써 자가교정의 가치를 파악하고 한국문학 번역의 방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의 탐구대상인 마셜 필과 그의 번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자가)교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 활용할 교정교열 항목을 소개한다. 이어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번역 쌍 8개를 소개하고 분석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교정교열 항목에 따라 선별한 교정사례 11개를 설명하고, 끝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논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마셜 필과 번역

마셜 필(1933~1995)은 한국 현대단편소설 분야에서 대표적인 인바운드(inbound) 번역가¹⁾로 알려져 있다(권영민 2013; Center for Korean Studies Collection n.d.). 1960년 하버드대를 졸업한 그는 폴브라이트 장학생 1기(1962~1965년)로 유학을 와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국문학 석사학위(1965)를 받았다. 서울대 입학 전에는 사상계(思想界)에서 각종 기사와 논설을 영문으로 번역했으며, 1970년에는 코리아타임즈가 주관한 번역대회에 참가해 “Nami and the Taffyman”(오영수의 「남이와 옛장수」, 이후 「고무신」으로 명명)으로 대상을 차지하였다. 이어 1974년에는 미국대학에서는 처음으로 한국문학(판소리 분석 및 심청가 번역)으로 박사학위(하버드대)를 받았다. 필은 1995년 7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국단편소설을 꾸준히 번역하였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연구·교육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필의 번역은 한국소설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단편소설과 관련된 그의 역서는 *Listening to Korea: A Korean Anthology*(1973,

1) 인바운드(vs 아웃바운드) 번역가란 간단히 말해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사람이다.

편저), *The Good People: Korean Stories by Oh Yong-su*(1985, 오영수 단편집), *Land of Exile: Contemporary Korean Fiction*(1993, 브루스·주찬 풀턴 공동 편집)으로 총 세 권이며, 이 가운데 필이 사망하기 직전에 출간된 *Land of Exile* 은 지금까지도 한국학 교재로 널리 읽히고 있다.²⁾ 그는 번역서 외에도 *Korea Journal* 등의 한국학 저널을 통해 선우희의 「망향」, 조세희의 「기계도시」 등의 단편을 영역해 소개하고 번역과 관련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나중에 일부 살펴보겠지만, 필의 번역에는 문학교과서에 등장하는 여러 작품들, 가령 「심청가」, 「홍길동전」 등의 고전을 비롯해 「오발탄」, 「꺼삐딴 리」, 「역마」, 「유형의 땅」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현대소설과 관련된 필의 번역 관점이나 전략은 최근 들어서야 일부 연구를 통해 소개되었다(이상빈 2018, 2019; Lee 2019). 이상빈(2018; Lee 2019)에 따르면, 필은 커리어 초반에 자국화 방식으로 문화특정 어휘를 종종 번역해왔으나 점차 이국화 방식을 강조하면서 번역 속에 한국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국화가 독자의 읽기나 이해를 지나치게 방해할 경우 이국화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자국화 방식으로 번역 전략의 균형을 피하기도 했다. 이는 필의 초역과 자기교정 후 재출판한 번역본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형”(兄)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hy ng*”으로 음역한 후 “He called me ‘older brother’”를 본문에 삽입했고 그 이후부터는 *hy ng*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이상빈 2018: 132; Lee 2019: 151). 반면 “평당 50만 환(圓)”을 호가하는 ...”이라는 구절에서는 “*extremely expensive – 500,000 hwan a p’y ng*”으로 직역했다가 재출판본에서는 “*– 500,000 hwan a p’y ng*”을 삭제하여 현대 독자의 기준에 맞췄다(Lee 2019: 153). 나아가 그는 등장인물의 심리와 어휘의 표현적 의미(*expressive meaning*)까지도 고려했는데, 일례로 1993년 재출판본에서는 “마우재”를 “Russians”에서 “*Russkis*”(러시아인을 비하할 때 쓰는 말)로 수정한 바 있다(Lee 2019: 151; Baker 2018: 12).

다만 위와 같은 사례는 일부 재출판본에서만 확인된 것이라 번역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소개된 사례들은 번역의 다양한 특징을 충분히

2) 필은 *Korean Word Book*이라는 한국어 교재의 저자이기도 하다. 브루스·주찬 풀턴(Bruce & Ju-Chan Fulton)은 필의 번역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지금까지도 몇몇 번역가들과 함께 한국문학 번역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히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필의 번역스타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앞서 소개되지 않은 사례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2.2 번역학에서의 (번역) 자기교정 연구

번역과 관련된 교정교열(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을 제외한 기존 개념의 교정교열) 연구는 그간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 유형과 주제로는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관련 연구는 특정 번역 상황에서 교정교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과정 측면에서 보여준다(Kunzli 2007; Robert and van Waes 2017). 이러한 연구는 비록 드물긴 하지만 이상원(2009), 김정연(2013)의 경우처럼 국내학계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번역가 집단을 가장하고 교정교열의 절차나 결과상의 차이를 비교한다(Robert and van Waes 2014; Schaeffer *et al.* 2019). 국내의 경우 이상빈(2013)이 번역역량이 다른 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교정교열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양적·질적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셋째, 교정교열을 이론화하거나 개념적으로 탐구한 유형도 있다(Rigouts *et al.*; Robert *et al.* 2017; 조의연·조숙희 2019). 요컨대 로버트 외(Robert *et al.* 2017)는 PACTE 모델 등을 기반으로 번역 교정교열 역량 모델을 개발하였고, 조의연과 조숙희(2019)는 *The Vegetarian* (한강의 「채식주의자」)을 기반으로 테보라 스미스의 번역관과 재번역(자기교정)의 가능성 및 의미를 논하였다.

출판번역의 교정과 관련된 연구는 대개 번역가의 초고가 편집자(때로는 다른 번역가)에 의해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보여준다(이상원 2009; 김정연 2013). 이러한 연구는 흔히 연구자 자신이 참여한 번역 프로젝트를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타인의 번역 초고를 수집·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김정연(2013)은 자신이 참여한 한국단편소설의 불어번역 과정에서 프랑스인 공동번역가 및 출판사 교정교열팀과의 “협상”을 차례로 다룬 후 “시제”, “메시지”, “문체”, “문법” 등의 측면에서 교정교열을 상세히 논한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는 이미 출판된 번역이 어떻게 수정되어 재출판되었는지를 보여준다(이상빈 2018; Lee 2019). 즉, 다른 번역가에 의한 재번역(*re-translation*)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 전에 출판했던 번역문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출판한 사례를 보

고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이상빈(2018)은 「서울, 1964년 겨울」의 서로 다른 네 번역본—피터 리, 정중화, 마살 필의 번역본 3개와 마살 필의 교정본 1개—을 기반으로 재번역과 번역 자기교정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마살 필의 자기교정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이상빈(2018; Lee 2019)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한두 편만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필의 자기교정을 최대한 수집하여 교정영역 별로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탐구한 「서울, 1964년 겨울」과 「꺼삐딴 리」의 번역도 재검토하여 새로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필의 자기교정과 번역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다른 번역가를 파악하여 번역본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필의 번역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가 단순히 번역 간 차이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교정교열과 관련된 이론적 틀에 따라 번역 간 차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필자가 참고한 교정교열 개념과 항목은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2.3 번역 교정교열 항목

적어도 학계에는 번역 자기교정을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이론적 틀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실무를 위한 교정교열의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브라이언 모삽의 *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s*(이하 “RET”)으로 약칭이다. 이 책(Mossop 2020: 190-197)에서 모삽은 “self-revision”이라는 용어와 실무를 거론하는데, 그가 논한 self-revision(본 연구에서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영어로 적음)은 본 논문에서 살펴볼 자기교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모삽에 따르면 self-revision은 번역가가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번역을 수정하는 것 또는 번역이 1차적으로 완성된 단계에서 번역을 수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교정을 “이미 출판한 자신의 번역을 (재출판용으로) 교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모삽(Mossop 2020: 136-157)에 따르면 번역을 위한 교정교열은 4가지 상위 영역과 14가지 하위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는 RET 3판(2014)에서 교정교

열을 상위영역 3개와 하위항목 12개로 구분하였는데 최근에 출간된 4판(2020)에서는 상위영역 1개(“번역 지침과 정책”)와 하위항목 2개(“고객지침서” 및 “고용주 정책”)를 추가한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은 텍스트만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성격상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 모삽의 교정교열 영역과 항목은 대략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모삽의 교정교열(Mossop 2020: 136-157; 이상빈 2017: 46-47을 일부 보충함)

상위영역(group)	하위항목(parameter)	핵심 내용(아래 내용이 전부가 아님)
메시지 전달 (Transfer)	정확성	원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옮겼는가?
	완결성	원문의 메시지 가운데 빠진 내용은 없는가?
내용의 논리 (Content)	논리	내용이 논리적인가?
	사실 관계	내용이 실제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가?
언어와 문체 (Language)	연결/자연스러움	문장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원문 표현의 간섭 때문에 읽기는 어렵지 않는가?
	독자에게 맞추기	번역이 사용자 관점에서 적합한가? 격식성과 전문성의 수준은 적절한가?
	하위 언어	장르에 적합한 문체인가? 전문용어나 어법은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관용구 등	언어, 관용구, 속어 등의 사용이 올바른가?
	문법 등	문법, 철자, 문장부호, 하우스 스타일(house style) 등에는 문제가 없는가?
텍스트의 시각적 요소 (Presentation)	레이아웃	띄어쓰기, 들여쓰기 등에는 문제가 없는가?
	타이포그래피	볼드체, 밑줄, 폰트 종류 및 크기 등에는 문제가 없는가?
	구성	페이지 설정, 헤더(header), 각주, 목차 등에는 문제가 없는가?
번역 지침/정책 (Specifications)	고객지침서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지켰는가?
	고용주 정책	번역회사 등의 정책을 충실히 지켰는가?

<표 1>의 내용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된 항목(parameter)만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성”(accuracy)이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원문의 메시지를 정확히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성은 원문의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옮겼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문이 지향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번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성에 집착해 완성한 번역은 독자의 읽기와 이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 확보에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둘째, “완결성”(completeness)은 원문의 메시지를 양적 측면에서 “충분히” 또는 “적절

히” 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원문의 모든 내용을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거나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가령 번역독자가 원문의 특정 어휘 없이도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암시적 형태로 번역할 수 있고, 반대로 원문 메시지가 번역독자의 이해를 지나치게 방해할 경우 변경이나 삭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연결/자연스러움”(smoothness)이란 시제 사용, 문장/단락 간 연결 등이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뜻이다. 번역가는 출발어의 고유명사를 무조건 그대로 옮겨서도 안 되고 원문의 머리글자(acronym)를 과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번역가는 구두법도 적절히 고려하여 번역문이 결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독자에게 맞추기”(tailoring)란 번역문이 어역(register), 장르 등에서 독자의 기대와 배경지식에 충분히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째, “하위언어”(sub-language)는 텍스트의 장르와 규범 등을 고려하여 시제, 문장구조 등을 번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번역가는 텍스트의 필드(field)와 예상독자를 고려해 전문용어, 어법 등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관용구 등”(idiom)은 번역이 연어, 관용구 등의 측면에서 도착어의 용례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곱째, “문법 등”(mechanics)은 철자, 구두법, 숫자 등의 영역에서 도착어의 규범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어 원문의 “4000,21 \$”는 영어 번역문에서 “\$4,000.21”로 변형되어야 한다. 여덟째,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란 기움임체, 굵은 활자체, 밑줄 등을 도착어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구성”(organization)은 단락구분, 항목화, 교차참조 등과 관련된 항목이다.

위와 같은 분류와 세부내용을 염두에 두고 교정본을 들여다보면 번역의 특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찾을 수 있고 그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논할 수 있다. 특히 분석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은 앞에서 밝히지 않은 다섯 개 항목, 즉 “논리”, “사실관계”, “레이아웃”, “고객지침서”, “고용주 정책”은 문학번역의 자교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관련이 적거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논리”와 “사실관계”는 창조적 글쓰기인 문학작품의 특성상 해당 사항이 거의 없고, 나머지 세 개 항목은 번역가가 사망했고 편집시점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사실 모샴의 이론적 틀은 필자의 분석대상이나 연구목표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

는다. 하지만 그의 분류기준은 지금까지 나온 관련 이론 가운데 완성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본 연구의 기준으로 활용한 것뿐이다.³⁾ 본 논문 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모샴의 항목분류는 문학번역을 분석할 때도 큰 지장이 없다.

3. 분석 자료 및 방법

3.1 분석 자료

필자는 마살 필의 번역 가운데 재출판이 이루어진 번역문을 수집하여 초판본과 재출판본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번역문은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학 저널 *Korea Journal*과 역서 세 권에서 수집하였다.

<표 2> 번역문 출처와 출판 정보

번역문 출처 (출판 연도)	출판 기관
<i>Korea Journal</i> (1966~1990)	한국학중앙연구원
<i>Listening to Korea: A Korean Anthology</i> (1973)	Praeger
<i>The Good People: Korean Stories by Oh Yong-su</i> (1985)	Heinemann Asia
<i>Land of Exile: Contemporary Korean Fiction</i> (1993)	M.E. Sharpe

비교한 텍스트 쌍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필자는 여덟 편의 원작과 각 원작에 대한 번역문 한 쌍, 즉 출판된 초역과 자교정 후 재출판된 번역본을 분석대상으로 정하고, 단일 작품 내에서 번역의 외형적 변화를 찾았다. 다만, 「서울, 1964년 겨울」, 「남이와 옛장수」, 「꺼삐딴 리」의 경우 재출판이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세 번역본을 모두 비교하였다. 참고로, 「서울, 1964년 겨울」, 「꺼삐딴 리」는 1973년, 1993년 번역본에서 제목이 소폭 수정되었다.⁴⁾

3) 모샴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비문학텍스트를 기반으로 한다(Mossop 2020: xvii).

4) “Kapitan Lee”와 “Kapitan Ri”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상빈(Lee 2019: 155)을 참고하라.

<표 3> 분석 대상(마살 필의 최초 번역과 자가교정 비교)

원작	출판된 첫 번째 번역	재출판된 번역(자가교정)
1.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1965)	Seoul-1964-Winter (1966)	Seoul, 1964: Winter (1973) Seoul: 1964, Winter (1993)
2. 늙어가는 데 관하여 (이양하, 1964)	On Growing Old (1966)	On Growing Old (1973)
3. 오발탄 (이법진, 1959)	A Stray Bullet (1967)	A Stray Bullet (1973)
4. 남이와 옛장수 (오영수, 1949)	Nami and the Taffyman (1970)	Nami and the Taffyman (1973/1985)
5. 꺼삐딴 리 (전광용, 1962)	Kapitan Lee (1971)	Kapitan Lee (1973) Kapitan Ri (1993, 제목 수정)
6. 섬에서 온 식모 (오영수, 1965)	The Girl from an Island (1974)	The Girl from an Island (1985)
7. 역마 (김동리, 1948)	The Post Horse Curse (1989)	The Post Horse Curse (1993)
8. 겨울 나들이 (박완서, 1975)	Winter Outing (1990)	Winter Outing (1993)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살 필은 196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소설 및 수필⁵⁾을 번역해왔으며 초역을 일부 수정하여 꾸준히 재출판했다. 여기서 초판본과 재판본의 출판 연도를 비교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27년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이 한국문학을 꾸준히 연구하고 번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출판된 번역교정본은 (그가 생각하는) 보다 바람직한 번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분석 방법 및 절차

먼저 필자는 모든 번역본을 통독한 후, 번역본과 자가교정본 간의 차이를 찾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교정본(사본)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교정교열 항목에 근거해 차이의 의미를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분석과정 및 논문작성 과정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지면의 제약상 모든 교정내용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또는 선행연구에

5) 분석대상에 자가교정이 이루어진 수필(『늙어가는 데 관하여』)이 한 편 포함되어 있어 분석에 포함시켰다.

서 조명되지 않은 사례만을 선택하였다. 둘째, 재출판이 두 번인 경우, 세 번 역본이 모두 다르고 그 차이가 유의하다면 세 번역을 모두 소개하였다(이하 예시 5, 8). 셋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ష이 제시한 모든 분류항목을 분석에 적용할 수 없었다. 넷째, 가분석 결과, 어떤 번역사례는 모ష의 분석항목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해야만 설명이 가능했다. 어떤 교정은 단일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교정은 두 개 나아가 세 개 이상의 항목(이하 예시 3, 5, 6, 8)을 모두 고려해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었다.

4. 자가교정 사례분석

본 장에서는 필의 교정 사례 11개를 모ష의 기준에 따라 분류·소개한다. 예시는 교정의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들로 구성하였으며 가급적 어휘, 문법, 구조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예시 1: 정확성(accuracy)

- 원문(남이와 옛장수): 여섯 살짜리 영이와 네 살짜리 윤이 놀이 상머리에 와 앉는다.
- 초역(1970, p. 15): Ch'olsu ... was joined by his daughters, six-year-old Yongi and four-year-old Yuni ... as if she had been asked ...
- 교정(1973, p. 180): Cholsu ... was joined by his little boys, six-year-old Yongi and four-year-old Yuni ... as if he had been asked ...

필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오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⁶⁾ 하지만 그의 초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중대하지는 않지만 오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소수 있다. 지금부터 살펴볼 예시 1과 2가 그런 경우다. 예시 1에서 필은 “영이”와 “윤이”를 철수의 딸(“daughters”, “she”)로 번역했다가 교정본에서는 아들(“little boys”, “he”)로 수정한다. 사실 이야기의 맥락상 영이와 윤이가 딸이나 아들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예시 1과 같은 교정

6) 필이 번역한 일부 교전과 관련해 번역품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가령 피터 리(Lee 1995: 1111), 윤혜준(2012)은 *The Korean Singer of Tales*(1994)에 수록된 판소리 심청가 번역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한다. 필은 이 책이 출간된 후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은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만일 자가교정과 재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교정 결과는 일반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시 2: 정확성(accuracy)⁷⁾

- 원문(섬에서 온 식모): 월레는 로오프를 잡고 배 위에 올라가서 따온 것을 쏟아 주었다. 청년은 고맙다면서 후하게 값을 쳐 주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는 쓸 데가 없다고 했다.
- 초역(1974, p. 47): ... The youth paid her generously but she protested that there was no place to use money on the island.
- 교정(1985, p. 117): ... The youth paid her generously, saying that he had no use for money on the island.

예시 2도 예시 1과 마찬가지로 필의 커리어 초반에 나타난 오역사례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밑줄 친 세 번째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는 것이다. 이 문장에는 텍스트 표면상 확인 가능한 주어가 없고 스토리와 맥락을 고려할 때 월레(첫 번째 문장의 주어)와 청년(두 번째 문장의 주어) 모두 밑줄 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은 밑줄 친 문장의 주어를 월레(he)로 번역했다가 85년 번역에서는 청년(the youth)으로 바로잡았다. 월레를 주어로 삼은 초역이 “논리상”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두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이고 외딴 섬에 머물고 있어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시 3: 독자에게 맞추기(tailoring), 연결/자연스러움(smoothness)

- 원문(서울, 1946년 겨울): 한 되들이 빈 술병에는 돈이 백십 원 들어 있었습니다.
- 초역(1966, p. 22): [T]here was 110 won in the empty one-toe sized wine bottle
- 교정(1993, p. 89): [T]here was one hundred and ten w n in the empty liquor bottle

지금부터 논할 필의 교정은 앞서 살펴본 두 예시와 달리 오역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초역을 섬세하게 다듬어 번역의 수용성과 충분성을 높인 사례이다. 먼저 바로 위에 제시한 예시 3을 살펴보자. 여기서 밑줄 친 “되”는 부피(약 1.8

리터)를 표현하는 의존명사이다. 필은 1966년 초역에서 되를 음역(“toe”)함으로써 원문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지만 1993년 교정본에서는 되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되는 초역이 이루어졌던 60년대만 하더라도 자주 사용된 단위였지만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면서 많은 한국독자들에게도 낯선 어휘가 돼버렸다. 또한 “toe”라는 철자는 외국 독자들에게 발가락으로 이해될 소지도 없지 않다. 아마도 필은 toe가 문맥상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독자의 이해를 방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밑줄 친 “one-toe sized” 전체를 삭제한 것 같다. 모습에 따르면 고유명사와 같은 원문 어휘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 읽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휘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Mossop 2020: 149). 또한 정확성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번역의 이독성(readability)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ibid.* 140).

예시 4: 하위언어(sublanguage)

- 원문(역마):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 ... 때 문인지도
- 초역(1989, p. 52): [...] the place was popular ... for the unusually clear and cool rice beer
- 교정(1993, p. 16): [...] the place was popular ... for the unusually clear and cool makk lli

예시 4에서 필은 “막걸리”를 “rice beer”로 일반화했다가 “makk lli”로 수정한다. 하지만 일부 번역가가 하듯이 막걸리에 대한 부가 설명은 따로 넣지 않았다.⁸⁾ 이러한 변화는 예시 3에서 살펴본 번역방향과 대비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문 독자의 읽기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코텍스트(cotext)를 보면 makk lli의 개략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makk lli가 본문 내에서 아홉 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탈자국화”(de-domestication)–자국화했던 번역을 이국화하거나 자국화 요소를 삭제하는 번역(교정)–방법은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Lee 2019: 152). 실제로 “막걸리”와 같은 술 관련 어휘

7) 예시 2, 6, 7, 9는 Lee(2020, in press)에서도 개략적으로 소개된다.

8) 가령 정중화는 동일 원작의 번역에서 makoli로 번역하고 그 의미를 각주에 “a typical Korean native brew fermented from rice and yeast.”로 설명하였다.

는 한국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빈도 어휘이기 때문에 본 예시처럼 음역되는 경우가 많다.9)

필은 자기교정 시 탈자국화 전략을 곳곳에서 사용하였다. 일례로 「겨울 나들이」에서는 “여관에서 일하는 소년”을 “young bellboy”(1990, p. 62)로 번역했다가 3년 뒤에는 “errand boy at the inn”(1993, p. 154)으로 수정했다. 경험해본 독자는 알겠지만 “여관에서 일하는 소년”은 영미권 독자의 심상(心象)에 존재하는 “벨보이”와는 차이가 있다.

예시 5: 관용구 등(idiom), 독자에게 맞추기(tailoring)

- 원문(남이와 옛장수): 그러나 옛장수는 [남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양버들 봄바람 맞듯 연신 히죽거리면서
- 초역(1970, p. 18): But the taffyman rolled with her accusation like a willow in the spring wind, laughing all the time.
- 교정 1(1973, p. 184): But the taffyman greeted her accusation as a willow bends in the spring wind, laughing all the time.
- 교정 2(1985, p. 8): But the taffyman kept grinning and grinning helplessly.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필은 원문 비유(직유)의 명제적 의미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번역을 수정한다. 먼저 1973년 교정본에서는 “bend”를 추가해 비유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방식은, 바로 앞 “the taffyman greeted her accusation”과 함께 생각해볼 때,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본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문학작품의 경우 원저자의 창의적 표현은 다른 텍스트 유형에서와 달리 어색하더라도 그대로 번역할 수 있다(Mossop 2020: 152). 하지만 필은 두 번의 교정 끝에 비유의 표층적 의미보다는 심층적 의미를 표현하는 쪽으로 결정한다. 추측컨대 그는 원문의 메시지(옛장수의 심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비유적 표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난해한 비유를 동사 “grinning”(아래 예시 9 내용을 참조할 것)과 결부시켜 “helplessly”로 축약하였다.10)

9) 필은 “The Boozer”(최인호의 술꾼)에서도 소주, 막걸리, 약주를 각각 “[He’d put down] rotgut soju, beery makk lli and even some refined yakchu”(p. 106) 등으로 번역하여 문화 특정 어휘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예시 6: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문장부호 등(mechanics)

- 원문(오발탄):
– 송 선생은 안 나가세요? 이제 청소를 해야 할 테니 그만 나가 달라는 투의 사환애의 말에 ...
- 초역(1967, p. 16):
– Aren’t you going, sir? The tone in the office boy’s voice was saying.
How about leaving now so I can clean up.
- 교정(1973, p. 127):
– “Aren’t you going, sir?” The tone of the office boy’s voice was saying
How about leaving now so I can clean up?

예시 6에서 필은 원문의 문장부호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1973년 번역에서는 도착어의 일반적 용법을 따랐다.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7년 초역에서는 인물의 발화(Aren’t you going, sir?)를 표현하기 위해 원문의 엠대시(em-dash) – 엄밀히 말해 인용대시(quotation dash) – 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인물의 속마음(‘이제 청소를 해야 할 테니 나가달라’)은 일반서술과 동일하게 무표적으로 처리하였다(How about leaving now so I can clean up). 반면 1973년 교정본에서는 도착어의 일반적 규범에 맞게 엠대시를 큰따옴표로 바꿨고 인물의 속마음도 이탤릭체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필의 번역은 타이포그래피 및 문장부호에 있어서도 섬세한 변화를 보였다.

다만 필의 이탤릭체 사용은 이탤릭체가 무려 50회 가까이 사용된 “Kapitan Lee”(1973)와 “Kapitan Ri”(1993)를 면밀히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

10) 이 부분은 두 차례나 수정한 만큼 필의 고민도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이 부분의 수정은 오영수 작가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1985년 *The Good People*의 역사서문을 보면, 필이 오영수 작가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오영수 작가에게 받은 호의를 갚기 위해 이 번역서를 출간했다는 말이 나온다(*The Good People*은 필의 유일한 단일 작가 작품집이다). 두 사람은 이 번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오영수는 출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11) 60년대 후반 마살 필은 원작의 대화를 엠대시로 번역했는데, 이는 원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필이 71년에 번역해 공개한 “Kapitan Lee”의 대사 부분도 원문 꺾배판 리와 마찬가지로 엠대시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 1966년 번역·발표한 “Seoul 1964 Winter”에는 원문과 마찬가지로 대화가 큰따옴표로 처리되어 있다.

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인물의 속마음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꺼배판 리』 원문	73년 초역과 93년 교정 비교
(A) <u>이게 무슨 청천 벽력 같은 기적일까, 그는 통역의 말을 의심했다.</u>	73: What sort of miracle was this? Like lightning from a clear sky. He doubted the interpreter's words. 93: 변화 없음
(B) <u>‘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그는 몇 번이고 감격에 차 중얼거렸다.</u>	73: <i>Medicine is my mission in life, he would murmur over and over with strong feeling.</i> 93: “Medicine is my mission in life,” he would murmur over and over with strong feeling.
(C) <u>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 법은 유에스에이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u>	73: <i>It seems my way of managing the world works even with the Americans, thought Yi Inguk, M.D., in high spirits. True sincerity can move Heaven itself, they say.</i> 93: Dr. Lee In-guk만 Yi Inguk, M.D.으로 수정했을 뿐 이탤릭체 사용은 그대로
(D) <u>대학을 갓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오면 별이라도 탄 듯이 날치는 꼴이 사나웠다. ‘어디 나두 뎡겨오구 나면 보자!’</u>	73: So many people, fresh out of college with no particular clinical experience, carry on in that unseemly way—as if they'd plucked themselves a star—all because they'd made a trip to the United States. <i>Well, I'm going this time. Once I get back, we'll see!</i> 93: <i>So many people, fresh out of college with no particular clinical experience, carry on in that unseemly way as if they'd plucked themselves a star—all because they'd made a trip to the United States.</i> <i>Well, I'm going this time. Once I get back, we'll see!</i>

위 (A)에서 주인공의 생각(‘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기적일까’)은 초역이나 교정본에서 이탤릭체로 표현되지 않았다. 이는 생각을 표시하는 작은따옴표가 원문에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령, (B)와 (D)에서 73년 초역을 살펴보면 원문의 작은따옴표 부분이 이탤릭체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까

지 고려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C)의 경우 초역과 교정본 모두 원문의 문장부호와 관계없이 인물의 생각을 이탤릭체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C)에서 인물의 생각은 “~감천이라고,”((A)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용 끝부분에 쉼표가 있음), “통하는구나”(다음에 한 칸 띄기가 있음) 부분을 통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한편, (B)의 경우 작은따옴표로 표시된 부분을 초역에서는 이탤릭체로 표현했다가 교정본에서는 이탤릭체 대신 큰따옴표로 처리하였다. 이는 *Medicine is my mission in life*가 속마음이라기보다는 “중얼거렸다”(murmur)의 목적어, 즉 실제 발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필은 원문의 문장부호에 따라 이탤릭체 사용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제 발화인지 속마음인지를 따져보고 원문과 관계없이 이탤릭체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D)의 경우 작은따옴표가 원문에 있건 없건 간에 해당 내용이 인물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분 모두 이탤릭체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A)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물의 속마음과 생각을 표현한 부분임이 분명한데 (A)에서는 왜 이탤릭체를 쓰지 않았을까? 필자는 이와 관련해 번역본의 여러 부분을 검토해 봤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다. 어쩌면 필이 놓친 부분일지도 모른다.

예시 7: 문법/문장부호(mechanics)

- 원문(거울나들이):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 초역(1990, p. 66): And so she became known to the neighborhood as Grama [sic] Nono, a local character.
- 교정(1993, p. 160): And so she became known to the neighborhood as Grandmother No-no, a local character.

필의 섬세한 문장부호 교정은 하이픈(hyphen)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시 7에서 볼 수 있듯이 필은 별명 “도리도리”(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병적으로 고개를 흔드는 할머니)를 “Nono”로 번역했다가 3년 뒤에는 하이픈을 추가한 “No-no”로 수정한다.¹²⁾ 이는 아마도 No-no가 Nono보다 No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원문 어휘의 반복리듬감을 보다 뚜렷하게 재현할 수 있기

12) 반대로 하이픈을 삭제하여 원문의 문화적 의미를 살린 경우도 있다. 이상빈(Lee 2019: 154)은 필이 “Nami-ko”를 “Namiko”로 수정한 이유를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때문이다. 게다가 Nono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일부 독자들에게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원문에서 의도한 심상 재현을 방해할 수 있다.¹³⁾

예시 8: 완결성(completeness), 독자에게 맞추기(tailoring), 하위언어(sublanguage)

- 원문(찌빠판 리): “닥터 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 시대에 일본말 식으로 배웠지요. 예를 들면 ‘쟈도 이즈 아 캬토’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발음이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다드 잉글리쉬입니다.”
- 초역(1971, p. 40): -I learned it during the Japanese period, in Japanese style. You know, *zatto izu ah katto* and so on.
- 교정 1(1973, p. 110): “... ‘*zatto izu ah katto*’* and so on.”
* “That is a cat.”-ED [각주].
- 교정 2(1993, p. 82): “... ‘*zatto izu ah katto*’ for ‘That is a cat’ and so on.”

예시 8은 친일파였던 주인공이 미국대사에게 자신이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1971년 초역의 경우, 일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자는 “zatto izu ah katto”(That is a cat의 일본식 음역)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인물 간의 대화 맥락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필은 1973년 교정본에서 “That is a cat.”을 각주¹⁴⁾로 추가하여 ‘일본어’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주인공의 일본어가 외국인도 알 수 있는 초급 수준의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다 1993년 2차 교정본에서는 장르관습상 어색한 각주를 삭제하고 각주내용을 본문에 삽입하여 인물 간 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독자가 스토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¹⁵⁾

예시 9: 정확성(accuracy)

번역이 “정확하다”는 말은 대개 원문의 명제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다

13) 가령 특정 언어에서 Nono는 아홉째를 의미한다. 구글 검색을 하면 그 밖의 다른 의미도 확인된다.
14) 이 각주는 번역본 내 유일한 각주이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소설에서 각주를 쓰는 것은 장르관습상 흔한 일은 아니다.
15) 1993년 번역서인 *Land of Exile*은 브루스-주찬 폴튼과의 공동 편자인데 이 책에는 각주가 사용되지 않았다. 일관성을 위해 각주사용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 원문(남이와 옛장수)
“[남이] 내 신 내 놓소”
“[옛장수] 신은 웬 신요?”하고는 상대방에 의심을 받을 만큼 히죽이 웃어 보이자 ... <중략>
“[옛장수] 뭘요, 그름밤에 흥두께도 분수가 있지?”
남이는 발끈하고 “내 신 말ियो!”
“[옛장수] 신을요?”
“[남이] 어제 우리 집 아이들을 피여간 옥색 고무신 말ियो!”
- 초역¹⁶⁾(1970, p. 18):
“Shoes? What shoes?” But then he laughed in an easy way that aroused her suspicions. [...]
“What’s this all of a sudden? What the devil are you getting at?”
“My shoes, I said!” Nami flared at him.
“Shoes?”
“The jade-colored rubber shoes you conned out of our kids yesterday!”
- 교정(1985, p. 8):
“Shoes? What shoes?” But then he grinned a suspiciously broad grin. [...]
“What’s this all of a sudden? What on earth are you talking about?” (중략)
“The jade-coloured rubber shoes you tricked out of our kids yesterday!”

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은 원문이 정보적 텍스트(informative text)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표현적 텍스트(expressive text)에 해당하는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휘의 명제적 의미만을 전달한다고 해서 번역이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예시 9이다.

예시 9는 주인공 남이와 옛장수의 첫 만남을 묘사한다. 여기서 필은 작품의 서정적 주제(두 남녀의 풋풋한 사랑과 이별)와 인물묘사 방식을 고려했고, 그 결과 교정본에서는 “표현적 의미”가 다른 어휘를 선택했다(Baker 2018: 12). 구체적으로 보면, 두 남녀관계를 보다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1985년 번역에서는 “laugh”, “what the devil”, “con”이라는 어휘 대신 “grin”, “what on earth”, “trick”을 사용한다. “devil”은 표현적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이고, 동사 “con”은 비록 trick의 뜻도 담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죄수”, “사기” 등을 연상시킨다.

16) 1973년 번역(p. 184)도 kids를 boys로 수정한 것 빼고는 초역과 동일하다.

또한 “grin”(기분 좋게 활짝 웃다)은 상위어 laugh에 비해 표현적 의미가 구체적이고 긍정적이므로 주인공 옛장수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필의 어휘 선택은 자기교정을 거치면서 더욱 섬세해졌다.

예시 9에 나타난 어휘변화는 작가 오영수의 세계관 및 작품 스타일과도 무관하지 않다. 오영수는 “서정의 온상과 자연성의 문학, 자연 속 인간본연의 자세 탐색 등을 필두로 하여 ... 향수, 인정, 서정성, 자연친화성, 순수성 등의 측면으로 주목받음” 작가이다(오태호 2010: 157-158).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예시 9에 소개된 「남이와 옛장수」이다. 교정본에 사용된 단어들은 초역에 비해 오영수가 추구하는 두 남녀의 감정을 보다 푹푹하게 표현한다.

예시 10: 연결/자연스러움(smoothness)

- 원문(늦어가는 데 관하여): 지금은 갠 10월 아침, 조반을 먹고 책상을 대하고 앉아 있는 이 순간만 하더라도 사위(四圍)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즐기는 데 있어서 짧은 때와 크게 다른 것을 알지 못하겠다. 멀리 바라보이는 인왕산 너머로 끝없는 높고 푸른 하늘, 담 너머 보이는 이웃집 감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뽕그란 감, 지난번 흰불나방의 잠식으로 한때 죽은 듯 하던 종나무에서 새로 돌아오는 때 아닌 싹을 보여주는 잎새, 가는 바람을 받아 지나간 여름날의 영화를 회상하는 것처럼 너울거리고 있는 아카시아, 방금 아침 햇볕 아래 유난히 반짝이는 솔잎, 그리고 이 솔잎이 뜰에 또렷이 던지는 아삭아삭한 그림자, 그리고 뜰 한 구석에 빨갛게 핀 한 송이 월계..... 이 모든 것은 이 아침의 신선하듯이 신선하게 느껴지고
- 초역(1966, p. 39) Even at this moment on a clear October morning (A)when I settle down to my writing table after breakfast, (C)I sense no great difference with my youth as I take in, savor, and enjoy everything about me. A high, blue sky endless beyond the distant lines of Mt Inwang, globular persimmons dangling from their tree across the wall in my neighbor's garden, the unseasonal new green sprouting fresh from the cedars (B)which had once seemed well nigh eaten away by tiger moths, [단어 37개 생략], and the bright red bloom of a single laurel in a corner of the garden. (D)All of this I sense with a freshness that challenges the morning itself.
- 교정(1973, pp. 210-211) Even at this moment on a clear October morning,

(a)when I settle down to my writing table after breakfast, (c)the sensations I feel as savor everything I see about me are not that different from what I felt in my youth. A high, blue sky endless beyond the distant lines of Mount Inwang, globular persimmons dangling from their tree across the wall in my neighbor's garden, the unseasonal new green sprouting fresh from the cedars, (b)which had once seemed well-nigh eaten away by tiger moths, [...], and the bright red bloom of a single laurel in a corner of the garden. (d)All of this inspires me with a freshness that challenges the morning itself.

예시 10은 만연체로 잘 알려진 이양하의 「늦어가는 데 관하여」의 일부이다. 이 수필은 문장이 지나칠 정도로 길고 복잡해 번역은 물론 설명도 쉽지 않다.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필은 전반적으로 원문의 구조를 존중하며 문장을 함부로 자르지 않고 번역했다. 그런데 1973년 교정본에서는 초역의 문장구조와 관계를 소폭 수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령, (A)→(a)와 (B)→(b)에서 볼 수 있듯이 when과 which 앞에 콤마를 삽입하여 의미를 바꾸지 않고 장문의 호흡을 소폭이나마 조정하였다. 그리고 (C)→(c)에서는 문장의 주어 “I”에서 “the sensations ...”으로 수정함으로써 sensations가 다음 문장에 등장하는 여러 명사구(sensations의 대상인 “A high, blue sky ...”부터 “... in a corner of the garden”까지의 여러 명사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즉, sensations가 “메시지의 출발점”(theme)으로 등장하고 sensations의 대상들이 곧바로 열거되는 연속구조를 만든 셈이다. 이러한 연속구조의 변화는 (D)→(d)에서도 나타난다. 초역의 (D)는 (C)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명사구를 “all of this”로 묶어 메시지의 출발점을 자연스럽게 유지한 부분이다. 다만 문장 (D)의 핵심구조는 (C)와 마찬가지로 “I sense ...”이기 때문에 수정된 (c)와 (D)는 연속구조 측면에서 자연스럽지 않다. 필은 이러한 문제를 (d)와 같이 해결한다. 먼저 “all of this”를 남겨두어 앞문장과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물주구문 형식으로 감각주체를 “I”가 아닌 “[inspires] me”로 재구성한다. 결국 위와 같은 교정은 복잡한 한국어 문장 구조를 지키면서도 영어의 연속성을 높인 사례이다.

예시 11: 구성(organization)

• 원문(겨울 나들이):

남편은 그 정도로 날 이해하고 제법 두둑한 여비를 주면서 ... 소중하게 움켜쥐었던 보물이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소중해했던 것만큼이나 정나미가 떨어지면서 우선 내 던져 놓고 보는 심리로 나는 남편 곁을 떠났다. 교통이 편한 대로 온양으로 왔다 ...

[이하 같은 단락 내 400단어 이상 생략]

• 초역(1990, pp. 61-62):

With that degree of understanding, my husband ... I left my husband with the mentality ... tossed it aside. I went to Onyang by the most convenient means ...

• 교정 (1993, p. 153):

With that degree of understanding, my husband ... I left my husband with the mentality ... tossed it aside.

I went to Onyang by the most convenient means ...

예시 11에서 필은 원문과 동일하게 단락을 만들었다가 93년 교정본에서는 밑줄 친 “I went to Onyang ...”부터 단락을 구분하였다. 즉, 원문의 단락구분은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시공간상 큰 변화가 있는 부분부터 새로운 단락을 구성한 것이다. 이는 작품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온양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상적인 글쓰기 방식을 고려할 때, 보다 자연스러운 단락구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을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여야 한다.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는 1975년 문학사상 9월호에 발표되었고, 이 원고의 단락구성은 필자가 예시 11에 제시한 원문과 동일하다. 그런데 최근 재출판된 작품의 단락구분은 필의 1993년 번역본과 동일하다. 추측컨대, 필이 1990년 번역에 참고한 원문은 1975년 원작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필은 1993년 당시 스스로 단락을 바꿔 번역했을 수 있고, 아니면 단락구분이 달라진 다른 원문을 참조해 자신의 번역을 수정한 것이다. 설명 후자의 경우라도 필의 교정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원문을 다시 검토해 자신의 번역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5.1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필자는 마살 필의 번역-교정본 여덟 쌍을 대상으로 자기교정 사례를 선별해 제시한 후 각 번역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사례에 나타난 교정교열 항목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교정항목	주요 내용
1	정확성	젠더/인칭대명사와 관련된 오역을 바로잡았다.
2	정확성	문장의 형태적 특징에서 비롯된 오역을 바로잡았다.
3	연결/자연스러움, 독자에게 맞추기	원문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고 독자의 이해와 이독성(readability)을 떨어뜨리는 문화특정 어휘를 삭제하였다.
4	하위언어	자국화한 문화특정 어휘는 탈자국화함으로써 한국문화 요소를 번역문에 보존하였다.
5	관용구 등, 독자에게 맞추기	원저자의 문학적 표현, 창의적 비유 등을 직역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문을 무리하게 따르기보다는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번역했다.
6	타이포그래피, 문장부호 등	원문과 동일하게 옳긴 문장부호는 도착어 규범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자연스러움을 높였다.
7	문장부호 등	하이픈, 콤마 같은 문장부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메시지의 깊이를 더했다.
8	완결성 등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내용을 보충·추가하였다. 이 경우 장르(텍스트 유형) 관습을 따르고 이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주를 본문 내 삽입으로 전환하였다.
9	정확성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지만 인물묘사 방식에 문제가 되는 경우 표현적 의미까지 고려하여 어휘를 수정하였다.
10	연결/자연스러움	번역문의 결속성을 고려하여 원저자의 문체는 유지하되 문장구조를 변경하였다.
11	구성	원문의 단락구분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단락을 구분했다.

앞서 제시한 분석사례를 기반으로 필의 번역과 교정이 보여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가의 자기교정과 재출판은 한국문학의 보급과 확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앞서 보았듯이 필은 자신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여 재출판하였고 때로는 교정한 번역본을 다시 교정·출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번역은 원문의 메시지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번역이 좋아진 것은 필이 애당초 훌륭한 번역가이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정할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작품이 번역으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가를 통해 재번역(retranslation)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교정을 통해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번역품질이 처음부터 매우 우수하다면 자기교정이 비록 미미해보일지라도 그 문학적 가치는 적지 않을 수 있다. 즉 최고의 번역가를 섭외하더라도 자기교정을 통한 재출판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교정과 재출판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의 경우 더욱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번역가라 할지라도 한 번의 번역을 통해 원저의 모든 메시지와 저자의 의도를 완벽히 담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번역가가 원저자와 작품을 더 연구하면서 기존 번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학작품 가운데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훌륭한 번역가를 섭외해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역을 ‘관리해주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Land of Exile*이 그러하듯이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번역 앤솔로지(anthology)를 만들 경우나 한국학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번역서를 만드는 경우에는 자기교정을 통해 재출판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이때에도 필과 폴턴부부처럼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번역가들이 공통의 이해와 기준을 마련하고 자신의 번역을 자기교정하여 앤솔로지를 제작하는 것은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둘째, 문학번역은 기본적으로 원문 중심의 번역을 하되, 도착어와 독자를 고려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필은 원문의 형식과 내용을 존중하며 최대한 원문 중심으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번역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경우 원문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처리하였다. 가령 “toe”(되)라는 어휘를 삭제했었고, “수양버들 봄바람 맞듯”과 같은 난해한 비유는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대체하였다. 또한 직역만으로 논리가 부족한 경우 본문 내에 “That is a cat.”과 같은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문장구조나 단락구

분도 도착어와 독자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수정하기도 했다. 물론 원문, 도착어, 독자를 모두 고려한 번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처럼 탄력적인 번역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다. 한국문학의 번역전략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 번역 내에서도 다양하고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다.

셋째, 문학번역은 단어차원에서부터 단락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층위에서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의 자기교정은 단어 차원에서부터 관용구, 문법(젠더 및 문장부호), 문장 내 메시지의 출발점, 문장 간 연결, 단락구분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다양한 층위에서 확인되었다. 필은 원문의 기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인물의 관계와 작품의 스타일을 고려하여 단어의 표현적 의미까지도 반영했고,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하이픈, 따옴표 등의 문장부호도 다듬었으며, 문장 간 결속관계를 고려하여 문장구조를 변경하기도 했다. 즉 문학작품이 번역 속에서 더욱 깊은 향을 내기 위해서는 필이 그랬던 것처럼 다층적인 교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번역과 관련된 실무교재도 앞서 살펴본 내용 등을 보다 상세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문학번역을 평가할 때도 언어의 여러 층위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에는 최소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번역출판에 관여한 편집인 등의 행위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번역의 모든 텍스트적 재현은 번역가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Land of Exile*에 수록된 필의 번역은 공동편저자인 폴턴부부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출판사 편집팀의 관점도 일부 반영되었을 수 있다. 다만 이상빈(2019: 129)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출판번역에서 나타난다. 둘째, 교정사례 분석은 번역가의 실제 판단이 아닌 필자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번역가가 사망한지 약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만일 후속연구에서 교정과 관련해 번역가를 직접 인터뷰 할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세 가지로 정리하며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수의 번역본을 수집해 마살 필의 자가교정을 가장 폭넓게 확인한 연구이다. 비록 지면 제약상 필자가 찾은 모든 사례를 논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필자가 제시한 사례와 이전 선행연구를 종합해본다면 필의 번역 관점과 전략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이상빈(2019: 145)도 지적했지만 그간 필의 번역은 그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그가 한국문학 확산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안타까움을 넘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번역가 마살 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제고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셋째, 본 논문은 여러 사례를 통해 한국문학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특히 필자가 소개한 사례들은 문장부호, 문장구조, 단락구성 등 작은 부분의 교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번역가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민 (2013) 「마살 필 교수에 대한 추억」, 권영민의 문학콘서트(블로그).
<https://www.muncon.net>

김정연 (2013) 「출판 교정·교열에 의한 번역내용 변화의 사례연구」, 『통번역학 연구』 17(3): 81-113.

오태호 (2010) 「오영수 소설에 나타난 서정적 리얼리즘 연구」, 『국제어문』 48: 155-182.

윤혜준 (2012) ‘Translating Ch’unhyangga: The Problems and a Strategy’, 『비교문학』 57: 261-287.

이상빈 (2013) 「학부 번역전공자의 교정교열(revision)에 관한 사례연구: 번역역량에 따른 비교의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14(5): 169-194.

이상빈 (2017)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9(3): 37-64.

이상빈 (2018) 「재번역 및 자가교정(self-revision) 분석을 통한 한국문학번역 방

향 고찰하기」, 『번역학 연구』 19(4): 121-147.

이상빈 (2019) 「번역문체 비교 연구: 소설 「유형의 땅」과 인바운드 vs 아웃바운드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3): 125-148.

이상빈 (2020) 「마살 필의 <홍길동전> 경판본 번역 분석」, 『통번역학 연구』 24(4): 97-124.

이상원 (2009) 「출판번역의 교정교열 사례 분석」, 『통역과 번역』 11(1): 81-113.

이상원 (2012) 「출판번역에서 번역가의 책임과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교정교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3(1): 115-135.

조의연, 조숙희 (2019)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관과 ‘결여-향상’과 ‘해석-다양성’ 재번역의 관점에서 본 *The Vegetarian*」, 『번역학 연구』 20(5): 197-216.

Baker, Mona (2018) *In Other Words* (third edition), London: Routledge.

Center for Korean Studies Collections (n.d.) *Marshall R. Pihl Papers*. Available at <https://ckslib.manoa.hawaii.edu>.

Kunzli, Alexander (2007) ‘Translation Revision: A Study of the Performance of Ten Professional Translators Revising a Legal Text’, in Yves Gambier, Miriam Shlesinger and Radegundis Stolze (eds) *Doubts and Direction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115-126.

Lee, Peter H. (1995) ‘Review of *The Korean Singer of Tales* by Marshall R. Pihl’, *Journal of Asian Studies* 54(5): 1109-1111.

Lee, Sang-Bin (2019) ‘Marshall R. Pihl and His Views on How to Enrich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9(2): 147-165.

Lee, Sang-Bin (2020, in press) ‘In Honor of Marshall R. Pihl: A Comprehensive Review of His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Review* 108: 1-14.

Mossop, Brian (2020) *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s* (fourth edition), London: Routledge.

Rigouts, Terryn Ayla, Isabelle S. Robert, Aline Remael, Jim J. J. Ureel, and Hanouille Sabien (2017) ‘Conceptualizing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A Pilot Study on the Acquisition of the Knowledge about

- Revision and Strategic Subcompetence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8(1): 1-27.
- Robert, Isabelle S., Aline Remael, and Jim J. J. Ureel (2017) ‘Towards a Model of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1): 1-19.
- Robert, Isabelle S., and Luuk van Waes (2017) ‘Selecting a Translation Revision Procedure: Do Common Sense and Statistics Agree?’, *Perspectives* 22(3): 304-320.
- Schaeffer, Moritz, Jean Nitzke, Anke Tardel, Katharina Oster, Silke Gutermuth, and Silvia Hansen-Schirra (2019) ‘Eye-tracking Revision Processes of Translation Students and Professional Translators’, *Perspectives* 27(4): 589-603.

<분석에 활용된 자료>

- Pihl, Marshall (1966a) ‘Seoul-1964-Winter’, *Korea Journal* 6(11): 20-33.
- Pihl, Marshall (1966b) ‘On Growing Old’, *Korea Journal* 6(11): 39-42.
- Pihl, Marshall (1967) ‘A Stray Bullet’, *Korea Journal* 7(5): 16-28.
- Pihl, Marshall (1970) ‘Nami and the Taffyman’, *Korea Journal* 10(12): 15-20.
- Pihl, Marshall (1971) ‘Kapitan Lee’, *Korea Journal* 11(1): 29-41.
- Pihl, Marshall (1973) *Listening to Korea*, New York: Praeger.
- Pihl, Marshall (1974) ‘The Girl from an Island’, *Korea Journal* 14(12): 43-49.
- Pihl, Marshall (1985) *The Good People: Korean Stories by Oh Yong-su*, Hong Kong: Heinemann Asia.
- Pihl, Marshall (1989) ‘The Post Horse Curse’, *Korea Journal* 29(11): 52-62.
- Pihl, Marshall (1990) ‘Winter Outing’, *Korea Journal* 30(2): 60-68.
- Pihl, Marshall and Bruce and Ju-Chan Fulton (1993) ‘Land of Exile’, in Marshall Pihl and Bruce and Ju-Chan Fulton (eds) *Land of Exile: Contemporary Korean Fiction*, New York: M.E. Sharpe/UNESCO.

[Abstract]

**Thoughts on How to Translate Korean Literature:
Lessons from Marshall R. Pihl’s Translation Self-revisions**

Lee, Sang-B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shows how Marshall R. Pihl, one of the most respected translators in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revised his own translations. His revisions analyzed in this article are from “Seoul: 1964, Winter”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On Growing Old” (이양하의 <늙어가는 데 관하여>), “A Stray Bullet” (이범선의 <오발탄>), “Nami and the Taffyman” (오영수의 <남이와 옛장수>), “Kapitan Ri” (전광용의 <꺼삐딴 리>), “The Girl from an Island” (오영수의 <섬에서 온 식모>), “The Post Horse Curse” (김동리의 <역마>), and “Winter Outing”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 Excerpts from these revisions are analyzed in detail according to Brian Mossop’s revision parameters, including “accuracy,” “completeness,” “idiom,” “smoothness,” and “mechanics.” Findings show that Pihl meticulously revised his own translations at various levels of language, such as word, idiom, punctuation, thematic structure, and paragraph. This article concludes with brief discussion of why the translator’s self-revision is important and how to enrich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 Keywords: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Marshall R. Pihl, translation self-revision, literary translation, retranslation

▶ 주제어: 한국단편소설 번역, 마살 필, 번역 교정교열, 문학번역, 재번역

이상빈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교수

tandistudies@daum.net

관심분야: 인바운드 번역가, 한국문학번역, 페미니즘 번역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2020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30일